

영흥도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의안 번호	2001
----------	------

제출일자 : 2010. 8. 18.

제출자 : 신성철 의원 외 14인

1. 주 문

- 우리 시 대부도에 인접한 영흥도에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이 시설이 설치될 경우 영흥도로 진입하기 위한 경유지인 대부도는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을 비롯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영흥도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해 반대 결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주)원광그린텍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과 옹진군에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음.
- 우리 시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5개소 설치되어 가동 중이며, 소각량의 약 80%이상이 외부로부터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어 타 지역 폐기물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음.
- 또한, 영흥도에는 영흥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발전소 관계차량 등으로 인한 피해로 대부도 지역주민들은 생활안전의 위해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영흥면에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악취 및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공사차량 및 폐기물운반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생태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하므로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의 사업계획서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대부도는 청정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연간 430만명의 관광객과 1일 2만5천대의 차량이 방문하고 있으며, 시화호와 연계한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지역임.
- 이러한 대부도 지역에 영흥화력발전소와 더불어 폐기물최종처리 시설까지 설치될 경우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이 가중되어 지역 주민의 어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연경관 훼손으로 관광객 감소 등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
-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는 75만 안산시민과 함께 현재 용진군에 설치 예정인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사업계획서는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영흥도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안)

(주)원광그린텍에서 영흥면 외리에 매립량 2,633,00m³ 규모의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우리시는 그동안 인접한 영흥도에 설치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강하분진 및 진입차량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주민 생활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폐기물최종처리 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는 청정한 대부도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차량 진출입 등으로 인한 주민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육로를 통한 영흥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부도를 경유하여야 가능하며,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매립장 조성을 위한 공사차량과 15년간 1일 80여대의 폐기물운반차량 등 관계차량 등으로 인하여 대부도 지역은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폐기물 운반으로 악취 및 침출수 발생 등으로 지역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다.

대부도는 우리시 최대 생태관광지로서 시화호를 비롯한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이 보전되어야 하므로 우리 안산시의회는 75만 안산시민과 함께 청정한 대부도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명확한 폐기물최종처리 시설의 영흥도 설치를 결사반대하며,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중단하고 사업계획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부도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침출수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해양환경을 오염시켜 주민생계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1. 대부도의 환경친화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 저해되는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

1.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사차량, 폐기물 운반차량의 대부도 지역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5만 안산시민과 함께 대부도의 자연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설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 한다.

2010. 9.

안산시의회의원 일동